

나의 책 나의 학문

김석득

연세대 명예교수

1. 학문과 언어관에 대한 깨침

나는 학부 때부터 외술(최현배), 한결(김윤경), 열운(장지영), 그리고 눈피(허웅)의 강의를 들었다. 생각해 보면 화려한 스승복을 타고난 행운아였다. 우리말 짜임새에 대한 법칙과 역사, 그리고 흥미하나마 언어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침이 시작된 것은 학부 3~4학년 때쯤인가 한다. 또한 말글과 정신 형성이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언어관을 스승님들로부터 깨친 것도, 그리고 이러한 언어관은 스승님들의 그 앞 선각들로부터 면면이 이어 내려오는 것임을 알게 된 것도 그 무렵일 것이다.

대학원(1956~58)에서 외술의 『우리말본』의 이론적 배경과 일반언어학 강의 그리고 『한글갈』의 '이론편' 강의, 한결의 말본 연구의 역사와 분석주의 말본론 강의, 열운의 이두 강의와 15세기 문헌 분석론, 눈피의 음운론 강의 등은 그 뒤 나의 우리말글 연구의 바탕을 이루어 주었다.

2. 새 이론의 받음과 반성

대학원 1학기부터 시작한 루코프 교수의 기술언어학 강의(이러한 강의 이

름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듯)는 미국 기술언어학파의 최초의 소개라는 데서 많은 흥미를 끌었다. 국어학-영어학이 언어학에서 만나는 계기가 된 것도 이때부터일 것이다. 글리슨의 『언어학개론』(H.A Gleason,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과 『언어 분석 연습책』(Work Book), 파이크의 『음운론』(K. L. Pike, *Phonemics*), 나이다의 『형태론』(E. A. Nida, *Morphology*), 해리스의 『구조언어학 방법론』(Z. S. Harris, *Methods in Structural Linguistics*) 등의 책을 교수가 무료로 나누어 주고 강의를 하였으니, 학생들은 말 연구의 새로운 방법에 더욱 관심이 끌렸다. 그러나 이 새로움에 도취한 나머지 이를 거름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선배 학자들의 연구 업적을 더 열심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그때 초학들이 저지른 큰 실수였다. 그러나 또한 이른바 분포(distribution)주의 또는 기술구조주의 수입 과정에서 얻은 소득도 크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포 분석에서 주개념과 변이적 유개념의 관계를 환경적 조건에 따라 이끌어낸다는 것은 중요한 연구 방법이었다.

이는 일종의 행동주의와 경험주의 철학이 뒷받침해 준 결실이라 하겠다. 또한 이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변별하는 일종의 사고의 경제성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기술언어학에는 분명한 철학과 인지론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의 석사 논문 「기술언어학에서 본 국어음운분석론」(1958)은 스승님들의 소리같이, 음운론을 주된 참고로 삼고, 위의 철학과 인지론을 배경으로 하여, 심리적 실체인 유한수의 음운과 구상적 유개념의 음성을 분석함으로써, 나아가 국어의 공식적 음운체계를 세우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생각하면 초기단계적인 것임을 면치 못할 것이나 그때로서는 새로운 것이라고 매우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그때 이를 계기로 미국의 기술언어학 책이면 덮어놓고(유럽언어학의 경향 등엔 전혀 무관심한 채) 읽기에 열중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다른 미국언어학의 이론이 들어오고 있었다.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분포주의 또는 기술구조주의 시대가 변형생성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나중에 『우리말 연구사』(1983)에서 이를 전기구조주의 시대에서 후기구조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로 기술했지만, 이 매우 짧은 기간에 두 이론의 시대가 갈마드는가 하면 한편 변형생성론에 대한 비판론이 곧 이어 물밀듯이 들어오기도

했다. 눈만 뜨면 달라지는 듯한 이론(공식적으로 활자화 안 된 땅밋으로 흐르는 논문까지)이 한국어언어학회의 발표나 특강을 통하여 나왔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 국어학계는 이론의 소화불량증에 걸린 듯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말의 독특한 본을 규명해내는 일은 학계의 일각에서는 논의 밖에 있었다. 여기에 현황에 대한 회의와 함께 국어 연구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했으니,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물론 과학적인 첨단 이론이 말의 구조를 규명하는 데 큰 힘을 준 것은 사실이다. 주개념과 그 변이적 종개념의 관계를 생성의 시각에서 본다든지, 구조에 대한 단선적 개념 보다는 속구조와 겉구조라는 이중적 개념의 시각에서 보고, 그 관계를 변형 과정을 통한 생성적 관계로 본다든지 하는 것은 말의 엷이를 좀더 잘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 눈이라 하겠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눈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철학이다. 곧 사람의 선형적 창조능력을 인정하는 합리주의 철학관이 변형생성의 이론을 감싸고 있다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입력되어 있는 기본과 출력의 관계를 연역법으로 이끌어낸다는 이론이 되는 것이다. 앞에 말한 전기구조주의가 후기구조주의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또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 또한 우리의 실수도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선각들이 이미 깨친 독특한 생성 철학관이 있었음에도(가령 훈민정음의 글자 생성의 철학관, 주시경 선생의 ‘속뜻’ [숨은 뜻]이론의 언어관 등) 이를 다잡아 규명하려 하지 아니한 것이 그것이다. 어떠한 이론이 영구불변의 진리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절대 보편성’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형주의에 대한 반론이 잇달아 일어남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나 수시로 바뀌어 들어오는 이론에 이리저리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 우리 말 특성에 맞는 일관된 자기 체계는 세울 겨를이 없다. 이론은 결국 자기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모이어야 한다. “벽돌을 쌓다가 허물고 또 쌓다가 허물기만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한 삶을 비만 맛고 산다”라는 로렌스의 말은 진리다. 나는 선각들이 일구어 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이를 조금이나마 발전시켜서 자기 체계를 세워 보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자기 학문에 대한 반성의 결과였다. 그리하여 나는 『우리말 형태론』과 『우리말 연구사』의 지음을 주된 할 일의 대상으로 삼았다.

3. 『우리말 형태론』과 『우리말 연구사』를 짓기로 하다

『우리말 형태론』을 짓기로 마음 먹은 동기는, 우리말과 같은 덧붙는 말(첨가어)에서는 말본 범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형태론'이라는 데 있었다. 한편 『우리말 연구사』를 지으려는 동기는, 외솔의 『한글갈』과 한결의 『조선문자 급 어학사』의 탁월한 업적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이에 조금이나마 닮아 보려는 욕심과, 우리 정통 학문의 역사 이해와 더불어 세계 언어학사 상에서의 우리 연구사의 자리매김을 하고 싶은 욕심에 있었다. 사실 정통 학문의 연구 역사의 이해 없이는 무엇이 새로운 이론인지, 어떤 것을 더 발전시켜야 할 대상인지를 알 수 없다.

형태론의 최초 논문은 「형태소의 분석」(『왕십리』 창간호, 1961), 「형태소의 변이형태(allomorphs)에로의 분석」(『한글』, 1962)들이고, 우리말 연구의 역사 논문은 「훈민정음해례의 언어학적 분석」(『한글학회 50돌 기념논문집』, 1971)이다. 그 뒤로는 책지움의 장-절의 차례를 미리 생각하면서 이 두 분야에 해당하는 크고 작은 논문들을 써 나아갔다. 내가 쓴 논문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섞여 있으나 편수로는 100여 편을 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형태론과 연구사에 관한 것이다. 어느 때이던가, 국어학사를 펴내라는 출판부쪽의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 이를 뿌리칠 수 없어 부랴부랴 펴내게 된 것이 『한국어연구사』 상권(연세대 출판부 문고판, 244쪽, 1975. 2.)과 하권(위 같은 곳 같은판, 288쪽, 1975. 12.)이다. 이 책들은 여러모로 모자란 점이 있었다. 그 후 나는 2년 동안(1980~1982)의 외유에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출판사의 연구사 출판의 청을 받았다. 그리하여 『한국어 연구사』 상하권을 집고 더하여 낸 것이 『우리말 연구사』(정음문화사, 크라운판, 508쪽, 1983. 12.)이다.

4. 형태론 연구 과정에서 얻은 『국어음운론』

최초의 기술언어학 도입 과정에서 음운론을 접하게 되고 또한 형태론을 연구하다 보니 형태음소론을 연구해야 했다. 이에 대하여 맨 처음 낸 논문이 「형태

음소론소고」(『국어학』 1호, 1962)이다. 또한 형태음소론을 하다 보니 음운론의 연구가 불가피했다. 한편 역사 정보 규칙(global rule)에 대한 공시 및 통시음운론에 대한 논문도 쓰게 되었다. 이런 종류로 맨 처음 나온 것은 「중세 순경음 비읍음 소고」(연세대 『인문과학』 12집, 1964)이다. 그후 「소실자운(graphemes) 고」(『나라사랑』 14집, 1974), 「15세기 모음조화 규칙」(『연세논총』 13집, 1976), 「고전몽고어의 모음조화」(『한글』 158, 1976)를 썼으며, 「된소리」에 대한 글로, 「15세기」(『동방학지』 42, 1984), 「16세기」(『동방학지』 46-47-48, 1985), 「17세기」(『연세논총』 21), 「18세기 ㉠」(『김형기 선생 팔절기념 국어학논총』, 1985), 「18세기 ㉡」(『동방학지』 50, 1986) 등을 썼다. 또한 「구개음화와 기저모음 및 어휘소(lexemes) - 역사적 정보 유도 규칙의 한계」(『한글』 126, 1978)를 쓰기도 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공동으로 펴낸 것이 「국어음운론」(방통대 출판부, 1985)이요, 몇가지 통시론의 글을 모아 대학원용의 영인판 「국어음운론 1」(일종의 비체계적 논문모임)을 내기도 했다. 앞으로 체계를 갖춘 「음운론」을 내 볼 생각이다.

5. 형태론 연구 과정에서 펴낸 『국어구조론 - 형태통어론』

앞의 몇가지의 글이 나오기 훨씬 앞서, 나는 공부를 좀더 하려고 박사 과정(1968-1971)을 밟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몽고어(Kaare Grønbech and John R. Krueger, "An Introduction to Classical (Literary) Mongolian", 1955)의 접근은 그 말본의 이해도 이해려니와 '형태론적 홀소리어울림'과 '비형태론적 홀소리어울림'을 깨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야콥슨 등이 지은 책(R. Jakobson, C. Gunnar M. Fant, M. Halle. *Preliminaries to Speech Analyses*, 1965)의 강독에서는 변별바탕을 익히고, 촘스키 등이 지은 책(N. Chomsky, M. Halle.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1968)의 강독에서는 음운의 변형 과정을 배웠다. 또한 이때에 통어 구조의 변형론 책들을 강독하면서 비판의 기회를 가져 본 것도 나에게서 귀한 시간이었다. 특히 훔볼트의 언어철학의 수강은 말의 이해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길을 열어 주기도 했다. 또한 위의 이론들을 익히면서 이를 『우리말본』(최현배)에 조명해 보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로 나는 학위 논문을 썼고, 이를 『국어구조론 - 형태통어론』(연세대 출

관부, 1971)으로 펴냈다. 이 글은 입음 - 하임법(피-사동법)을 변형의 눈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논문의 성격상 변형의 제약성이 다만 시사되었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 아쉬움을 덜어버리려고 쓴 것이 「한국어 사역문 유도의 제약과 의미」(『조선학보』 94, 1979)이다.

위의 논문은 파브르 교수가 꼬레지 드 프랑스의 한국학 연구소의 한국학 논문집 4권에 프랑스말로 옮겨 실었다(A. Fabre. “Restriction Concernant la formation des phrases causatives et la catégories du causatif en coréennes”. Cahiers d'études coréennes 4, *Centre d'études coréennes*, Collège de France, 1986). 입음법-하임법의 문제는 좀더 정리하여 『우리말 형태론』에 옮겨 실었다.

나는 파리 7대학 동양학부 교수로 한국어와 한국말본을 강의하는 동안(1980~82) 겸하여 언어학과에서 박사(국가)과정을 밟게 되었다(강의의 결과는 이로부터 3년 뒤에 펴낸(함께 씀) 한국어 교본 *Initiation à la langue coréen*(1985)으로 나옴). 수강할 때 관심을 끈 것은 그로스(M. Gross) 교수의 분포적 자질론(propriétés distributionnelles)이었다. 분포주의자 해리스의 제자인 그는 해리스가 분포론에서 시사한 변형론을 뛰어넘어 한때 아주 변형주의자가 되었었지만, 결국 새로운 자료가 나올 때마다 보편적 이론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는 데서 지나친 변형주의로부터 탈출한다. 그의 분포적 자질론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파리 7대학 안에 자동적 자료처리와 언어실험 연구소(laboratoire d'automatique documentaire et linguistique)를 설치하였는데, 그 설치 배경은 이에 말미암은 것이다. 나는 일찍부터 자료 중심의 구조주의를 익혀온 터라, 이에 공감하면서 그러나 말의 속구조(속뜻)와 걸구조의 변형적 상관관계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제까지 생각해 오던 우리말 형태론(형태통어론)의 체계는 이 방법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6. 『우리말 형태론』과 『우리말 연구사』를 펴냄

(1) 『우리말 형태론』(탑출판사, 757쪽, 1992. 8. 30.)의 주안점

이 책은 이제까지 장-질을 생각하면서 발표한 논문을 깎고 더하며, 모자라

는 것은 새로이 써서 형태론의 체계를 세워 버린 것이다. 이 형태론의 테두리는 형태음운론과 형태통어론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말본과 비슷하다. 이런 까닭으로 “말본론”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이 책에서 특히 역점을 둔 것은 굴곡론(준굴곡론[토씨론]을 포함)과 파생 및 합성론(말만들기) 그리고 도움풀이씨론이다.

말만들기 문제는, 단선적인 직접구성요소 분석(I-C 분석) 곧 배합의 최근 관계 분석보다는 낱덩이(낱말)의 내부적 구성요소 서로 사이의 기능과 의미 관계([a+b]에서 종속 및 대등적 결합규칙 유도), 그리고 핵구성요소와 구성소 총합사이의 기능과 의미 관계에서 동심([a+b]→A, B) 및 이심([a+b]→Z) 규칙 유도라는 생성구조 의미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굴곡론에서는 물론 준굴곡 요소(토씨)의 말본 범주에 대한 통어 의미의 이해도 나름대로 힘썼지만, 더욱 굴곡론 중 입음법-하임법, 높임법(존대법), 시상법, 의향법에 힘을 기울이었다.

‘입음법-하임법’은 이미 책(1971)으로도 나왔음을 앞에서 말하였기로 여기서는 더 말하지 않겠거니와, 다만 이것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제시해 본다. (1) 입음-하임법은 성립될 수 없고 오직 파생적인 것으로만 보아야 한다는 견해, (2) 이른바 하임법 중에도 하임법과 파생법을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 (3) 하임법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4) 입음-하임법을 인정하되 접미법(접미사에 의한 말본 기능 수행)에 의한 것에 한한다는 견해, (5) 접미법과 도움법(보조서술어에 의한 말본 기능 수행)에 의한 것까지 포함한다는 견해, 등 다양하다. 나는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것은 동형성을 적용, 입음-하임법을 인정하고, 그것은 접미법과 도움법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특히 입음-하임 접미사는 파생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우리말의 특성이라고 보고, 이를 ‘굴곡적 파생’으로 처리하였다.

‘높임법’에서의 관심은 (1) 높임의 등분과 관계되는 구성소의 규명이다. 이 구성소는 단순 형태소와 그 배합체로 생성되는 높임법의 낱덩이 곧 최소형(minimum forme)이다. 이 최소형의 연구는 높임법의 통어구조와 의미 규명에 선행되어야 할 중요 과제이다. 또한 이는 사전의 높임법 항목 규정에도 중요할 뿐 아니라 ‘속기법 컴퓨터(음절단위 한번 누르기)’의 생략법 처리에서 연구되어야 할 선행 과제이다. 그런데도 이의 연구는 아직 불모지인 듯하다.

나는 이에 대한 글을 지난날 발표한 일이 있고("An Analysis of Honorific Minimum Form in Korean", 한국 인지과학회 / 한국정보학회 논문집, 『인간과 기계와 언어』, 1989), 이를 다시 기워서 『우리말 형태론』에 실었다. (2) 높임법에 대한 다음 관심은, 높임법 구성요소의 일치적 기본구조와 그 변이적 확대구조(상향성 및 하향성)의 규칙 규명이다. (3) 높임법의 구조 규칙은 말 할이와 말들이 그리고 제3자와의 상황논리(나이, 사회적 신분, 친근성, 등 상관관계)에 따라 변이함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것은 높임법은 특히 사회언어학, 더 나아가서는 인간학(민족학)과도 연계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일찍이 높임법 문제가 제8회 국제인류학 민족학 대회(도쿄, 1968)의 주제가 되었던 것도 그 까닭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나는 이 대회에서 「한국어의 높임법의 확대구조」(An Expansion Structure of the Polite Form in Korean, VIII International Congress of Anthropological and Ethnological Sciences, vol. III, 1968)를 발표하고, 이것을 더 정리하여 『우리말 형태론』에 실었다. 물론 높임말은 아태지역말에만 한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프랑스말의 "tutoyer, vouvoyer"의 쓰거나, 러시아말의 이인칭 홀셈은 Tb1, 그 겹셈은 Bb1인데, 홀셈인 경우에도 정중한 표현으로 겹셈 Bb1를 쓰는 것(프랑스말도 그렇지만 러시아말도 이러한 표현이 움직씨(동사)의 끝바꿈까지 지배한다: Tb1 3Haewb ...? '... 알고 있나?', Bb1 3HaeTe...? '알고 있습니까?') 등이 그 보기이다. 따라서 높임법은 정중한 표현법과 함께 (세계)사람들의 공통된 의식 구조와도 연계성이 가정된다. 이 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언어학회의 활동에 기대를 건다. 내가 전에 발표하고 이를 기워서 『우리말 형태론』에 옮긴 「더낮춤법과 더높임법」, 「존대의 같은주고받음(reciprocal use)과 다른주고받음(non-reciprocal use)」은 높임법의 형태-통어구조에 중심이 실린 것이나 사회언어학과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시상법(tense-aspect)'의 연구는 '시간'의 문제가 흥미있는 대상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시간은 공간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철학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 보헨르의 공간과 시간(*L'espace et le temps*), 그밖의 베르그송 등의 시간론들에 흥미를 느낀 것은 나만에 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내가 『우리말본』(최현배)의 '12 때매김'(444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까닭의 하나이기도 하다. 12 때매김을 잘

살펴 보면, 때(시간, 으뜸때 : 이적, 지난적, 올적)와 움직임의 상태(상 : 끝남, 나아감, 나아감 끝남)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 개념은 이미 한헌샘에게서 볼 수 있다(주시경, 『국어문법』 100쪽, 더욱, 이 글쓰는이의 『우리말 연구사』 291-7쪽, 『주시경 문법론』 105-15쪽을 볼 것). 내가 '때(시제, tense)'와 '상(aspect)'의 개념을 좀더 분명히, 구체적으로 체계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은 파리 7대학시절 두 개의 기본 참고서를 얻음에서부터이다. 그 하나는 '상의 개념'(La notion d'aspect, *Recherches linguistiques*, V, L'université de Metz, Actes publiés par J. David et R. Martin, 1978)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 64권 - 때의 말본'(Langages 64 - le temps grammatical, par R. Martin, F. Nef, Larouses, 1981)이다. 나는 앞서 「한국어의 시간과 시상」(『한불연구』 1호, 1974)을 쓴 바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하고 또한 위의 책들을 참고하여, 「우리말의 시상」이란 글을 써서 서울로 부쳐 활자화했다(『애산학보』 1집, 1981). 이 글은 이 과정에서 거칠어진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여, 좀더 다듬어서, 그 뒤에 쓴 글들(『겨레문화』 1호, 1987, 『한글』 195호, 1987)과 함께 『우리말 형태론』에 실었다. 시상과 관련하여, 우리말은 움직임 줄기(어간)의 통어 의미를 기준하여, 이른바 '상성 움직임'을 분류해야 한다. 나는 지면의 제약을 받아 그 책에서는 다만 그 시도를 하는 데만 그쳤다. 한편 이른바 시상 접미사의 의미에 대하여 나는, 그것은 '중화된 시간성과 구체적 상성의 융합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중화된 시간성은 통어적 구조에서 구체적으로 변별 분화되는 특질을 가진다고 본다. 또한 우리말의 상은 움직임의 상태뿐 아니라, 동형성의 원리에 따라 움직임과 직접 관계 있는 말할이의 심리상태(추정 : '- 겠 -, 회상 : '-더-' 등)의 개념까지를 포함함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른바 때매김 접미사는 (1)때만 뜻한다. (2)상만 뜻한다. (3)시-상의 뜻이 분명하다. (4)심적 상태는 서법의 문제이다.

『우리말 형태론』은 이 밖에 의향법론, 부정법론, 도움풀이씨론, 형태음운과 상징론, 등을 형태-통어론의 자리에서 체계화하기에 노력은 했으나 다른 이들의 더 깊은 연구를 기다린다. 이 책의 잘못된 점이나 모자란 점은 더 깊고 고쳐서 다음에 고침판으로 낼 것이다.

(2) 『우리말 연구사』(정음문화사, 508쪽, 1983. 12. 30.)의 주안점

역사 기술은 사관이 문제이다. 사관에 따라 우리말의 연구사가 우리말글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 기술하는 것(서지학적인 기술과 정책적인 기술까지를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우리말글 연구의 흐름의 연계적 맥을 찾아 기술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관의 차이는 그 기술의 시대 구분도 필연적으로 달리 나타난다. 앞의 경우는 성격상 기술의 역사가 훨씬 앞설 것이니, 그것은 고대로까지 소급할 것이다. 그러나 뒤의 경우는 대체로 15세기 훈민정음 창제시기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며(물론 보는 눈에 따라 실학시대부터라고도 하고, 근대화기부터라고도 할 것이다.), 그 이후의 시대별도 연구 방법과 연구의 철학 등, 이른바 사조적 흐름에 따라 구별할 것이다. 어느 경우이건 역사 기술에는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의 『우리말 연구사』의 사관은 연구의 흐름의 맥을 찾아 기술하는 쪽이다. 이 책을 쓰고자 하는 동기는 이미 앞에서 말했거니와(3을 볼 것), 사관의 선택은 일반 언어연구사론을 접하면서 좀더 분명해졌다. 특히 일찍이 헤르비의 「근대언어학사」(Gerhard Helbig, *Geschichte der neuern Sprachwissenschaft*, 1970)와, 그 뒤 뽀띠에 편 『20세기 프랑스의 언어학 1, 2권』(Bernard Pottier, *Les Sciences du langage en France au XX^{ème} siècle*, *, **, 1980)은 참고할 만한 것이었다. 나는 우리말 연구의 비릇을 훈민정음 창제로부터 삼았다. 그리고 연구사에서 훈민정음의 분석에 큰 비중을 두었다. 그 까닭은 비록 15세기라 하지만 훈민정음이야말로 세계의 문자-음운 연구사 상으로 보아도 유례없는 위대한 과학과 철학적 이론의 소산이기 때문이다(물론 그 정신적으로 위대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이러한 훈민정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는 조선 시대 연구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훈민정음의 학설의 발전사를 평가할 수 없음도 그 까닭이다. 역사를 보는 시각이 이러하므로, 연구자의 자료도 주관성에 빠지지 않도록 이론적 체계와 철학에 바탕을 두어 엄선한 것이다. 그리하여 앞에서 말한 바 『한국어 연구사』 상-하권을 엮은 것이다. 여기에는 작은 자료나 사관에서 벗어난 자료들(정책적인 것 등)은 챙기지 못하였다. 훈민정음에 관한 문제도 그 주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술이 각주 처리로라도 해 놓았어야 할 일이었다. 『한국어 연구사』를 바탕으로 삼은 『우리말 연구

사』는 많은 것을 기워 넣기는 했으나, 역시 모두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나는 이러한 아쉬움을 씻기 위하여, 매우 긴 보충 논문인 「세종 시대의 국어학」을 써서 발표했다(『세종문화사대계』 1. 4-6판 91-197쪽. 세종기념사업회. 1998. 12). 이 글은 동국정운(서), 사성통고 범례, 훈민정음해례, 훈민정음언해 등의 상호 관계를 연구사적인 각도에서 연계적 관계로 다룬 것이다. 이는 앞으로 더 깊고 고치는 책을 낼 때 거기에 넣을 것이다.

『우리말 연구사』는 사조사의 측면에서는, 조선조 국어학(대체로 운학)의 역(易)사상, 근대국어학의 규범과학, 전기현대의 전기구조주의, 현대의 후기구조주의로 흐르는 맥을 짚어 보았다. 이 과정에서 나의 연구사관의 성격상 최세진(崔世珍)에 대해서는 16세기 국어교육의 시각에서만 평가함에 그쳤다. 그러나 최세진의 업적 평가는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더 자세히 기워 넣을 생각이다. 18세기 조선조 국어학에서, 명곡 최석정(明谷 崔錫鼎)의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의 자료를 입수하여(김지용 교수가 교토대학 「하합문고」에서 발견, 1968년 연세대 인문과학 연구소에서 영인), 내가 처음으로 그 언어학적인 분석(「실학과 국어학의 전개」 - 최석정과 신경준과의 학문적 거리, 『동방학지』 16집, 1975. 『우리말 연구사』에 옮겨 실음)을 하여, 연구사의 흐름을 이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조선조 국어학의 주류인 역철학 사상의 심한 동요와 아울러 구조 인식을 시작한 유희(柳僖)의 학문(언문지) 분석을 통하여 국어연구의 사조적 변환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하다.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룩한 한헌샘(주시경)의 창의적인 국어문법의 연구는 우리말 문법사 연구의 획기적인 금을 긋는 것으로 평가했다. 내가 단행본으로 『주시경 문법론』(1979)을 펴낸 까닭도 여기에 있다. 『우리말 연구사』는 한헌샘을 뒤잇는 근-현대의 여러 말본 학자들의 업적, 특히 외솔의 『우리말본』을 비롯한 세 큰 말본학파의 업적을 이론의 흐름쪽에서 주시했다. 또한 연구사의 속성상 ‘현대’라는 제약이 있음에도, 현재 활동 중인 학자들에게서 전-후기 구조주의를 이끌어 내어 우리말 연구의 일반 언어학 사상의 현재적 자리매김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말본론 및 음운론 외적인 분야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한 아쉬움을 남겼다. 고침판을 낼 때 이는 기워질 것이다.

7. 그밖의 책(공저)들, 계획

나는 나의 언어관(우리나라 말글을 보는 눈)에 따라 우리말글의 정책론이나 순화론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글들을 썼다. 어느 것은 다른이와 함께 책(『고운말사전』, 1991)으로 펴내기도 했다. 이러한 것들도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믿는다. 그밖에도 방언학이나 고전의 주석도 다른이들과 함께 책으로 낸 일이 있다(『국어방언학』[함께씀], 1971, 『역주 석보상절』 6-9-11권[함께역주], 1991). 지금은 『외솔 최현배 - 학문과 사상』을 펴내기 위하여 마지막 교정을 보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우선 나의 할 일은 『우리말 형태론』과 『우리말 연구사』를 집고 더하여 고침판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미 펴낸 책(함께씀)과 글모이 책을 체계화한 『우리말 음운론』을 엮어 볼 생각이다.